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원적

‘덕승가풍’ 이어온 대표적 선사

수덕사 분향소 조문객 줄이어
지관 스님·李대통령 등 발걸음

<1면에서 계속> 3월 18일 주석처인 영화실에서 원적에 든 원담 스님의 곁을 지키던 덕승총림수덕사 원담진성대중사 장의위원회는 “스님의 원적을 안타까워하는 문도들이 마지막 한 말씀을 청하자 대중사께서는 ‘그 일은 언구에 있지 아니해. 내 가풍은 (주먹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다!’ 하셨다”고 전했다.

스님의 열반 소식이 전해지자 조계종 중정 법전 스님은 19일 법어를 발표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법전 스님은 “인연 따라 모습을 나누고 세상을 종횡무진하더니, 오늘은 눈 앞에서 묘진(妙眞)을 나누어 두출두물(顯出顯沒)하고 은연자재(隱顯自在)함을 보입니다”며 “공적(空寂)하고 응연(愜然)한 진상(眞相)을 우리에게 보인 것은 노화상(老和尚)의 활중득사(活中得死)의 소식(消息)입니다”고 밝혔다.

수덕사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총무부장 원학 스님 등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조문한데 이어 2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분향소를 찾았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19일 분향소를 찾았다.

지관 스님은 조문 후 “종단에 어른스님들이 많이 계시야 마음이 든든한데, 어른스님들이 한 분 한 분 떠나시어 안타깝다”며 “문중스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방장 스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큰스님의 상좌인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법장 스님으로부터 큰스님 일화에 대해 많이 들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조문메시지를 통해 “친견(親見)하여 난국을 헤쳐 갈 큰 가르침을

청하고자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열반하셨다니 못내 아쉬울 따름”이라며 “우리 곁을 떠나신 큰스님의 크고 높은 공덕을 기리며, 원담 대중사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밝혔다.

문도대표인 설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덕승의 산천초목은 노래하고, 수류는 눈물을 흘립니다. 사회 대중 또한 평생을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덕승총림 가풍을 이어온 무애의 선지식이셨던 큰스님의 덕화를 기리며 슬퍼하고 있다”며 “속히 사바세계로 왕림하셔서 무명에 빠진 저희들에게 불조해명의 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스승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1933년 벽초 스님 은사로 출가
국제서도전 수상 등 선필로 유명

■원담 스님=원담 스님은 경허-만공-벽초 스님을 이어 ‘덕승가풍’을 지켜온 이 시대 대표적인 선사(禪師)다.

원담 스님은 1926년 전북 옥구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꿈에 신승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해 ‘몽술(夢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울지 않던 아이가 화주하러 온 스님의 묵탁과 열불 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스님은 7살이 되던 1933년에 수덕사 초대 방장인 벽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33년 벽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 했다.

1958년 구례 화엄사 주지를, 1964년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67년에는 은사인 만공 스님의 법어를 모은 <만공어록>을 펴냈고 1970년 수덕사 주지로 취임해 사찰의 면모를 일신하는 한편, 수덕사를 ‘덕승총림’으로 지정하는데 힘썼다.

1986년 덕승총림 제3대 방장으로 취임하고 94년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어 2003년에는 <원담 법향집>을 펴냈으며 2004년 대중사(大衆寺) 법계를 흡수했다. 이 밖에 승가사 조실, 용인 하운사 조실, 용인 법륜사 조실, 금산 금락사 조실, 향천사 천불선원 조실, 개심사 보현선원 조실을 역임했다.

스님은 선필(禪筆)로도 유명하다. 1980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인거할 때 경봉 스님이 ‘자네 글씨가 내 글씨보다 낫네!’라고 말할 정도로 문필에도 밝았던 스님은 1986년 ‘일본산업경제신문’이 주최한 국제서도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독립기념관 건립 서예전을 열어 전액을 회사하기도 했다. 1982년에 쓴 수덕사 대웅전 현판을 비롯해 1984년 보은 범주사 주련을 직접 썼다. 2007년 12월 펴낸 <원담대중사선묵집>에는 스님이 평생에 걸쳐 완성한 서예 작품들이 실려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행연보

- 1926년 전북 옥구 출생. 이명(兒名)은 김몽술(金夢述).
- 1927년 중남 서산으로 이주.
- 1933년 벽초 스님을 은사로, 만공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
- 1958년 지리산 화엄사 주지.
- 1964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취임.
- 1967년 <만공어록> 간행.
- 1970년 수덕사 주지 취임.
- 1980년 <경허법어> 간행.
- 1980년 승가사 조실.
- 1980년 용인 하운사 조실.
- 1982년 수덕사 대웅전 휘호.
- 1983년 덕승총림 설립. <만공법어> 간행.
- 1984년 속리산 범주사 주련 휘호.
- 1986년 덕승총림 제3대 방장 취임. 일본산업경제신문 주최 제3회 국제서도전 대상 수상.
-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취임.
- 2002년 용인 법륜사 조실.
- 2003년 법어집 <덕승산법향> 간행.
- 2004년 대중사 법계 흡수. 금산 금락사·향천사 천불선원·개심사, 고현선원 조실.
- 2007년 <원담대중사선묵집> 간행.
- 2008년 독립기념관 소장 대중사의 작품 13점을 덕승총림 선미술관에 기증.
- 3월 18일 오후 9시 수덕사 영화실에서 열반.

대관음사 삼보전 재개관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화)가 삼보전인 우리절역사관·내생체험관·세계불교관을 육불보전 7층으로 이전 재개관했다. 삼보전은 사찰의 15년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세계 각국의 불상과 내생체험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전법학림 내에 위치한 삼보전은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4대 재일(초하루, 원불, 지장, 관음)에만 개방한다. (053)474-8228 **순법천 대구지사장**

동자승 신계사 참배 추진

부처님오신날대구불족위원회(위원장 허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동자승들의 신계사 참배를 추진한다.

불족 홍보사절단으로 활동하게 될 동자승 8명은 4월 5-6일 금강산 신계사를 참배하고 남북 불교계의 통일 염원을 전할 예정이다. 대구불족위는 “신계사에서 평화통일기원법회를 열고 남북간 친선과 상호신뢰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053) 623-6388 **순법천 대구지사장**

노인일자리사업 교양 교육

대전서구노인복지회관(관장 장곡)은 일자리 참여 유도를 위해 ‘2008 노인일자리 사업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3월 19일 열린 교육은 2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목적과 방향, 참여자의 자세, 건강관리, 생활 안전 등으로 이뤄졌다.

장곡 스님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직무 교육, 발달식 등에도 참여해 취업을 위한 소양을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순효선 기자**

조동종 자비암 인증 점안식

대한불교조동종 마산 자비암(주지 청정)은 3월 16일 승정부원장 법공덕룡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 이어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도 개최했다. 자비암은 11년째 매년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

법공 스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태어나 바른 법 만나기도 더욱 어렵다. 부지런히 닦아서 죽음의 공포 없고 살아서 극락가는 대자유인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

원담진성 대중사 임종계

來無一物來
去無一物去
去來本無事
青山草自青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 한 물건도 없이 가는 것이로다.
가고 오는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름이로다.

고불총림 백양사 강원학인모집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신입 - 편입 학인스님 방부를 받습니다.

- ◆ 모집인원 및 대상 : 신입생(치문반) 00명
편입생(사집, 사교, 대교) 0명
- ◆ 모집기간 : 신입생·편입생 2008년 4월 4일 까지
- ◆ 구비서류 : 행자교육 필증, 수계증 사본 각 1부
은사스님 추천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사진(3x4) 3장
수료증 사본 및 수행기록부 1부(편입생만 해당)
- ◆ 입학특전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규 4년제 지원(사집반 이상)
- ◆ 문의처 : 강원(지객스님) 061)392-7324 / 종무소 061)392-7502

불기 2552년 3월

백양사 승가대학 강주 법광

